



계간 쟁기

이야기 | 생각 | 문화

봄 2019

“환대의 식탁”



- 이것은 나의 몸이니 _ 에드워드 당티카
- 대가품 극복하기 _ 요한네스 마이어

- 세상의 벽을 모두 허물 책 _ 이억배
- 새로운 사랑의 길 _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지거 퀴더의 “성찬”, 사순절 베일 ‘배척당한 이들을 위한 희망’에서, 1996년

지거 퀴더(1925-2015)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병사로 프랑스 전선에서 포로로 잡혔다. 석방되자마자 그는 은세공 기술을 익혔고, 이후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주립 미술 디자인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퀴더는 튀빙엔의 카톨릭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그림을 그리며 미술을 가르쳤다. 1971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1995년 사목활동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두 가지 소명을 통해 그려낸 퀴더의 예술은 사목 기간 동안 전성을 이루었다. 그가 만든 제단 조각과

프레스코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독일 전역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전쟁과 포로생활은 십자가와 순결무구한 고통을 선명하게 표현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그림 설교가’라고 부른다.

그의 작품들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화가를 만나러 엘방엔에 옵니다. 그들이 화가에 관심을 보인다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봄 2019, 재창간 2호

편집자의 편지	원마루	3
독자의 편지		4
가족과 친구들		5
아이와 소	모린 스윙어	6

특집: 현대의 식탁

이것은 나의 몸이라	에드워드 당티카	8
세계 각국의 현대의 식탁에서	클라우디오 올리버 엘리자베스 맘보 김성희 코친 월치 A. 주니어 자이로 콘데가 클레멘스 베버	15
왜 예멘은 굶주리는가	다니엘 래리슨	2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편지	리처드 조이너	24
좋은 농부의 정의	필립 브리츠	25
대가뭍 극복하기	요한네스 마이어	26
사랑은 일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39

책과 사람

새로운 사랑의 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40
세상의 벽을 모두 허물 책	이억배	42
조니 애플시드	비어리 홀리엇	44

아티스트: 마이클 네이플스, 안드레 칭, 칼 저스트

시빌 앤드류스, 카메론 데이빗슨, 지저 쿼터

www.plough.com/ko

계간 쟁기

www.plough.com/ko

계간 <쟁기>를 펴내는 공동체를 만나세요



쟁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브루더호프가 펴내는 잡지입니다. 브루더호프는 가족과 미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은 산상수훈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영감을 받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파라과이 등에 있는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서 약 2,90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홈페이지: bruderhof.com/ko

<쟁기>는 일상의 믿음과 생동에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신념은 달라도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쟁기>는 독자들과 글쓰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쟁기>는 편집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저자의 글을 실습니다. 기고문은 쟁기의 편집 방향이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피터 맘슨, 비어리 홀리엇, 샘 하인, 김희태, 박성훈, 오지니, 오케빈, 원마루, 번역 위원: 전나무, 전남식, 배지영, 조남규. 크리에티브 감독: 클레어 스토버, 미술: 에멀리 알렉산더, 디자인: 로잘린드 탐슨. 한국판 디자인: 산위의동네. 관리: 새나 구드윈, 객원 편집자: 모린 스윙어, 수잔나 블랙.

창간 편집자: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

<쟁기> 재창간 2호. 환대의 식탁, 2019. 6

지난 재창간 겨울호를 과거 소식지 호수를 이어받아 16호로 부른 것을 고쳐 1호로, 이번 호를 2호로 부르게 됐습니다.

쟁기출판사 발행, isbn 978-0-87486-307-9

Copyright © 2019 by Plough Publishing House.

표지 그림: 마이클 네이플스.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뒤표지: 카메론 데이빗슨의 허락을 받고 사용.

표지 안쪽 그림: MVG Medienproduktion und Vertriebsgesellschaft mbH의 허락을 받고 사용.

편집부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T: 845.572.3455

United Kingdom
Brightling Road
Robertsbridge
TN32 5DR
T: 01580.883.344

Australia
4188 Gwydir Highway
Elsmore, NSW
2360 Australia
T: 02.6723.2213

<쟁기>는 플라우 출판이 펴내는 간행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구독 문의: info@plough.com

쟁기책방: plough.com/bbang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탁

마이를 네이플스 그림,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2009년 먹방으로 시작된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 열풍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전문 요리사가 친절하게 요리법을 알려주던 방송이 인기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등장해 대화로 양념을 넣고 시식을 하는 데로 발전하더니, 삼시세끼 같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진화했고, 백종원의 골목식당같이 동네 식당의 생존기를 담은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잡지 같은 매체에서 서민의 삶과 역사를 재료로 요리 문화를 담아내는 요리 칼럼니스트의 글들이 많이 읽히고, 시시각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음식의 순간에 수억의 사람들이 군침을 삼킵니다.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 2:8, 새번역)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은 그저 현대사회의 낭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뭐라 해도 음식은, 그걸 어떻게 기르고 나누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현상이 장기간 경제 침체로 많은 한국인들이 불안과 불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털털한 차림으로 서민의 음식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거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버들이 열근한 김치찌개를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뿐만 아니라 위안을 느낀답니다. 요리 예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 많은 이들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SNS의 요리 영상이나 사진을 들여다보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흐뭇해하더라도 때로는 왠지 허전하고, 허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빵이나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호 <계간쟁기>에서는 농장과 식당 사이의 관계, 땅과 인간 사이의 연결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보면 인간의 임무는 땅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환대의 식탁 또는 잔치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결혼 잔치입니다. 신랑 신부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이 모이는 일은 시대에 상관없이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이 잔치에 쟁기출판은 《성, 하나님, 결혼》이라는 새 책을 식탁에 올려 놓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속가능한 관계를 찾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 재미와 맛이 계속 가려면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 책은 소박한 식탁도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연애를 잘 하거나, 가정을 근사하게 꾸리고 영재를 길러내는 법 같은 것은 언급도 안 하지만, 지속가능한 결혼은 어떤 토대 위에 지어야 하는지, 관계가 상처받거나 깨어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부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발간에 맞춰 ‘성, 하나님, 결혼’ 찾기 책 이벤트가 열리니 참조해 주세요.

환대의 식탁,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마루 드림

“학교의 이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를 읽고 (2019겨울호에 실린 D.L.메이필드의 글)

나는 D.L. 메이필드가 이 글을 통해 꼭 밝히려 했던 생각에 동감하면서도 두 가지 우려를 덧붙이고 싶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와 우리 아이들을 지역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과는 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닌 공립학교인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 홈스쿨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자원을 빼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볼티모어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찰을 무장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수 없었다. ‘등급을 낮게 받은’ 학교라고 몇몇 더 관심 있는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약자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어떤 곳은 정말 부패하고 불안전하고 빈곤해서 경제적 다양성에 도움이 될 부모들과 학생들을 들여온다 해도 나아질 일이 없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은 해를 입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장애 아동들과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메이필드가 제시한 비전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셈이 될 것이다.

-케냐 리테인에서 매튜 로프터스

아내와 함께 네 자녀를 유치원부터 고교 3학년까지 성공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D. L. 메이필드가 쓴 “학교의 이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에 참으로 실망했다. 일찍이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마다 각기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놓고 깨닫고는 무엇이 각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 가족으로서 매우 힘든 결단을 종종 내려야 했다. 우리 아이들은 홈스쿨링과 사립학교, 공립학교, 종교적인 학교를 두루 다녔다. 어떤 때는 아이들 넷이 다 다른 프로그램에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감행하며 한 번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로서 다른 소수층의 아이들을 지원하므로 특별히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고, 학교가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 “자기애들이 영재라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메이필드는 공교육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공립학교의 주요 역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 예로 최근에 논란이 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ies)과 미연방의 아동 낙오 방지법(NCLB Act)을 들 수 있다. 메이필드는 또한 영재들은 어떤 교육 환경에서든 학업 성취가 가능하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굳히려고 한다.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영재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교육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각 아이에 대한 최선이 최상급 학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밝힌다. 우리가 그런 학교가 있는 곳에 살았기에 우리 아이들을 시내 고등학교에 보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는 부모들이 자리가 있다면 자기 학군 외의 학교를 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프란시스 워들

신앙과 초콜릿

리치 비온드(Reach Beyond: '관심을 너머'라는 뜻)라는 작은 선교 단체는 에콰도르의 셸이라는 마을에서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카카오 작물 개발을 하며 동부 밀림 지역 공동체에 수익성 작물이 되도록 돕고 있다.


리치 비온드는 1931년 에콰도르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하여 의료 선교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이 농업은 새 땅을 개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카카오 작물을 나눠주기만 하고 묘목 육성에 대한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작물은 다 자라기까지 3-5년이 걸리기에 이 지역의 폭우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한 가정에서 카카오 작물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짧은 주기로 자라는 카사바 뿌리, 콩, 관상용 식물인 유카와 함께 경작할 수 있다.

리치 비온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동체 식구들은 자기 집 주변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전체 카카오 판매 이익금을 분배 받게 되는데, 경작물은 두 개의 지역 공장에서 가공되며 아마존 초콜릿으로 판매된다.

이 단체의 지역 개발 담당자인 워 드 그로렌은 이 활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카카오 경작법'에 비유합니다. 작물들을 돌보는 일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포함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해요. 카카오 작물의 접붙이는 뿌리에서 시작하는데요. 집중호우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놈을 고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뿌리를 튼튼하고 아름다운 작물에 접목하면 밝은 황금빛 꼬투리가 열리면서 질 높은 카카오가 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접목될 필요가 있다는 정말 훌륭한 예입니다."

목공예의 장인, 폴 셸러스

만약 당신이 목공예와 수공구로 만든 공예품에 관심이 있다면 폴 셸러스에 대해서 들어 봤거나 그의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봤을 것이다. 폴은 거의 평생을 나무 다루는 일을 했고, 오랫동안 작업장에 손 공구를

되찾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영국 스톡포트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살다가 지난 10년 동안 옥스포드에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옹호하며 자신이 보수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않기에 본인을 아마추어로 여긴다. "살면서 정말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겠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잘 될 방도를 찾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쁘게 지내려 애쓰지요. 그렇지만 망가진 것을 고치려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일하면서 평화를 찾아 간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작업실에서 일하는 폴 셸러스



에콰도르 '리치 비온드' 선교회의 카카오 묘목 생산 현장. 이곳에서



저자의 아들이 수송아지와 함께 한 사진

아이와 소

모린 스윙어

목장의 시작은 단순히 인격 형성 연습의 일환이었다. 우리 목장에 온순한 브라운 스위스 종 소가 암송아지를 낳은 후 소는 총 세 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11월, 우리는 헛간문에 기대어 크림색의 비틀거리는 수송아지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 이제 저 송아지를 어찌지?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집에 있는 아들 녀석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 중이었다. 저 아이가 송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헛간은 우리집 뒷문에서 200미터도 안 되는 곳이라 우리 아들도 이 송아지가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음 해 가을 즈음에는 생산적인 마무리, 즉 도살할 때까지 키우도록 도울 수도 있었다.

남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가정이 아니었다. 아들도 스스로 어떤 생명도 돌볼 적이 없었다. 아이는 일주일 만에 토끼에 흥미를 잃었다. (실은 우리 가족 모두 그랬다. 결국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찾아 주었다.)

우리 아들은 고기를 좋아한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사냥 전망대에 앉아 있기를 즐기며, 수사슴이 사슴 구이와 소시지로 바뀌는 과정을 도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송아지의 눈을 들여다 보며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주고 있다. 일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진 않을까? 우리가 계획을 설명하자, 아

모린 스윙어는 쟁기의 편집자로, 뉴욕 월든의 팍스힐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신나해서 나는 오히려 근심을 덜었다. 이 사랑스러운 작은 송아지는 -이름이 스포트다- 관심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손살같이 침대에서 일어나 장화를 신고 달려나가 곡물과 건초, 물을 챙겨 주었다.

아니 사실 송아지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다. 아이는 한번도 제 시간에 아침을 먹으러 오지 않았다. 이웃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쑥쑥 자라는 송아지가 아침이면 밥을 달라고 고향치는 소리이고, 곧이어 부모가 짜증난 소리로 “아침 먹을 시간이야”라고 소리치는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5 -10분 후에 쾌활하게 “가고 있어요.”라는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오고, 아이는 더러운 장화를 벗어 던지고 자기 곡물(시리얼)에 코를 묻었다.

그러면 항상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번은 스포트가 울타리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농장 일꾼이 더 멀리 떨어진 초원에 스포트를 풀어두자, 아이는 곡물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 가까운 목초지를 가로질러 스포트가 있는 곳으로 날라야 했다. 그러자 배고픈 소 세 마리가 일제히 달려 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정하고 부드러운 소들이었지만 각각 630킬로그램이 넘는 거구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와 언쟁을 벌이기가 좀 힘들다. 어느 날은 건초더미가 자기를 한번 봐 달라고 한다. 느니, 또 어떤 날에는 울타리가 자기 위에서 균형 잡아 줄 사람이 필요했다지 뭐냐.

아이는 이런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저 모험이라며, 시리얼 그릇 위로 큰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하지만 아침 먹으러 제 시간에 집에 와야지.” 하면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서는 다음 날 아침 또 늦게 아침을 먹으러 오곤 했다.

여름이 되면서 스포트는 옅은 황갈색에서 윤택한 갈색으로 짙어졌고, 울음소리도 마치 악담을 퍼붓는 십대처럼 더욱 우렁차졌다. 우리는 스포트의 목소리가 쉬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스포트는 뿔 사이 머리를 긁어주는 것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농

부는 여전히 충성을 바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스포트가 옥수수를 먹는 동안 함께 하며 다정하게 수다를 떨었다.

9월이 되자, 스포트는 튼튼한 한 살이 되었다. 남편은 아이에게 더 이상 헛간에 가지 말라고 했다. 10월이 되었고, 마지막 아침 날 아이는 헤어질 인사를 하러 나갔다. 매일 아침 혼자 갔던 것처럼 지금도 혼자 가고 싶어했다. 아이와 스포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다. 아이는 허둥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돌아왔다.

이웃집에서 아이에게 좋은 의도로 “도살업자가 네 소를 도살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하고 물었다. 아이는 잠시 머뭇 하더니 “배부를 것 같아요.”하고 답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비큐를 해서 200명이 먹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에게 고맙다며 인사했다. 아이가 스포트를 추억할 때면, 아이의 얼굴에 조용히 자부심이 보이는 게 보기 좋다. “엄마, 스포트는 훌륭한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고기 맛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



에드위지 당티카

이것은 나의 몸이라



안드레 칭, 사탕수수 수확, 쿠바 하바나

음식과
자유에
관하여

“야, 너는 이빨로 네 무덤을 천천히 파는 구나!” 내 친구의 아버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처음한 사람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스스로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그 친구와 나는 그 아버지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곤 했다. “저희도 알아요!”

음식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음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위험해 보이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친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종종 생각이 났다. 일례로 내가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자주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수용소의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편한 시간인 새벽 4시에 아침식사를, 오후 4시에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

14년 전, 아이티에서 보트를 타고 마이애미로 건너온 여성들과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플로리다 남부의 어느 호텔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항상 체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먹었던 음식을 토하거나 설사병에 걸리기 일쑤였다. 호텔방 하나에서 여섯 명이 살았고 심지어 몇몇은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했다. 하지만 가장 굴욕적인 고통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이었다. 자신들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조차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병에 걸리고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1980년대 초반 내가 십대였을 때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브룩클린 해군 주둔지역 근처 수용소에 있는 아이티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방문하러 가곤 했다. 그곳에서도 음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당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남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 속에 여성형유방증, 즉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

다.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한 남자는 나의 아버지에게 다가와 “그들이 우리를 온순한 여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1987년 10월, 마이애미 크롬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30명의 아이티 남자들은 수용소 안에서 여성형유방증에 걸렸다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이애미 수용소와 브룩클린 수용소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아이티인들이며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들이 제공받은 음식이었다.

소송을 통해 수용소에서 사용했던 동물용 살충제와, 이와 음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던 독한 크릴 바디로션이 여성형유방증을 유발했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여성형유방증이 식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로 인해 수감자들은 그들이 제공받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심한 절망이나 괴로움 속에서 먹은 식사는 항상 기억에 남는다.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형집행을 받기 직전에 선택한 마지막 식사는 항상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과 함께 사형집행 후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주 언급된다. 가장 유명한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다. 최후의 만찬은 모든 마지막 식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반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비난하고 배반할 자들을 포함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드셨다.

수년 전, 아버지와 교회 형제들과 함께 브룩클린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 그 이후로 방문한 여러 수용소에 만

에드위지 당티카(Edwidge Danticat)는 많은 책을 쓴 저자입니다. 2019년 8월에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 저술한 Everything Inside라는 책이 Knopf 출판사를 통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당티카 작가는 2009년 맥아더 펠로(MacArthur Fellow)상과 2018년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Neustadt International Prize for Literature)을 수상했습니다.

난 여성들 중 일부도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 보호자 없이 수감되어 있던 많은 아이들은 십자가 혹은 성 크리스토포루스 메달(어린 예수를 어깨에 메고 급류의 길을 건너는 성인이 새겨져 있는 메달)을 다른 성패들과 함께 지니고 다니며 고된 여정 속에 있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성 크리스토포루스는 작고 여린 아이를 데리고 요동치는 강을 건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아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린 예수로 생각되기도 한다. 성 크리스토포루스 역시 수용소에 투옥되어 사형으로 삶을 마감한 이민자였다.

사막을 건너고 요동치는 강을 건넌 많은 아이들은 며칠이라도 견딜 수 있는 음식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길을 떠난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그 이후에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것은 마치 자유를 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램프가 밝게 빛나며 황금 문이 아직도 열려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았다.

아이티에서 온 이민자이셨던 부모님은 나와 내 남동생들이 미국 문화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이틀에 한번 꼴로 먹는 밥이나 콩 그리고 플랜테인 바나나(다른 바나나에 비해 단맛이 덜하고 크기가 커 요리에 자주 활용되는 바나나)와 같은 아이티 음식 대신에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 음식인 피자나 후라이드 치킨 아니면 핫도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매일 학교 점심으로 이런 미국식 음식을 이미 먹고 있다고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부모님까지 내 이빨로 내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와 내 남동생들에게 “빈 자루는 설 수 없단다(sak vid pa kanpe)”와 “오직 네 배속에 든 것만이 네 것이다(se sa k nan vant ou ki pa w)”를 자주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항상 어머니께 “네”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특별히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꼭 말씀 해주셨다. 우리 집의 가훈이자 어머니가 자주하셨던 말 속에는 너무 배고픈 채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칼 저스트,
짓밟힌,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칼 저스트,
하루의 노동,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있다. 식사 초대를 받은 집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배가 너무 고프더라도 절대 티를 내면 안 될뿐더러 어떤 집을 우연히 식사시간에 방문했을 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같이 식사하자는 주인의 권유를 거절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식사시간에 맞춰 그 집을 방문한 욕심쟁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자신

이 너무나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라흐다르 부메디네(Lakhdar Boumediene)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2017년 그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잡지에 자신의 단식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나는 내가 왜 단식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 가끔씩 질문을 받곤 한다. 죽고 싶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나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내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죽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는 부당함에 대해 항변해 보지도 않은 채로 주는 것을 계속 받아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가두고 결백함을 주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고문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독방에 가둠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들의 음식을 삼키게 만큼은 할 수 없었다.”

2013년 7월, 모스 데프(Mos Def)라고도 알려진 랩퍼이자 사회운동가인 야신 베이(Yasiin Bey)는 판타나모 만 수용소에서 단식 투쟁을 했던 수감자들이 당한 강제 급식을 체험하기로 했다. 베이는 전기고문 의자와 같이 생긴 의자에 앉아 손과 발, 머리까지 묶여졌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비강 튜브를 코와 식도를 거쳐 위까지 삽입했는데, 이는 미국 군대에서 내장 영양공급이라 불리는 방식이었다. 온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베이는 구역질과 함께 기침을 계속 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가슴과 배를 누르고 있는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사정했다. 1분 정도 지나자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통에 역지로 끼여져 있었던 튜브가 빠졌다. 간수들이 다시 튜브를 끼기 위해 베이를 붙잡자 “전 야신 베이입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나서야 간수들은 베이를 놓았다. 고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다. 묶였던 몸이 풀리자마자 베이는 울면서 쓰러져버렸다.

만약 베이가 실제 죄수였다면, 간수들은 정해진 양을 역지로 먹이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판타나모 만 수용소에 수감된 채 단식투쟁을 했던 수감자들은 하루에 두 번씩,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음식을 강제로 먹어야 했다. 인슈어(Ensure)라는 영양 보충제가 들어간 액체가 몸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입에는 마스크가 씌여졌다. 물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자신의 ‘건조한’ 감방으로 돌려보내진 이후에는 구토를 하는지 안하는지 철저히 감시를 당했다. 만약 보충제를 토해냈다면, 다시 온 몸이 묶이는 의자에 앉아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 의자에 앉은 채 소변과 대변을 봤고,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보충제를 투입하는 튜브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이슬람교의 성월인 라마단 기간동안 금식을 하는 수감자들은 동트기 전과 해가 진 후에 강제급식을 당했다. 이번 년도 초에는 텍사스, 마이애미, 피닉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민자 수용소에서 단식 투쟁에 참가한 수감자들이

연방 판사의 판결에 따라 모두 비강 튜브를 통해 강제로 영양제를 먹어야 했다. 수감자 가족들에 의하면 강제 영양공급은 수감자들을 평생 구토와 코피에 시달리게 한다고 한다.



리 집안의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이유나 질병 없이 죽는다면 그 죽은 사람은 '먹혔다'라고 말한다. Yo mange li. '그들이 남자를 먹었다' 혹은 '그들이 여자를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Yo)'은 한 사람 일 수도 여러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은 멀리 떨어진 채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해 파괴적인 길로 이끄는 자들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자신을 고귀한 희생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먹혀지길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무렵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무기한 수감하기 위한 군 교도소로 사용되기 전까지 3만 7천명의 아이티인 망명 희망자들을 수용하는 창고였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처음 선출된 대통령인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가 군사 쿠데타로 인해 쫓겨난 후, 망명 희망자들은 아이티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공해상에서 미국 해안경비대에게 붙잡힌 자들이었다. 당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민자들은 미국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HIV 양성 반응을 보인 망명 희망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기약없이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2백여명이 넘는 HIV에 감염된 아이티인들을 이끈 사람은 두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아이티 정치 운동가인 올란데 진(Yolande Jean)이었다. 그녀는 1993년 1월 23일부터 90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다. 그 당시 올란데 진은 미국인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몸은 무너지더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살 수 있도록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1993년 관타나모 만 수용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가족, 특히 자신의 아들인 힐과

제프를 위해 편지를 썼다.

가족들에게

힐과 제프야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말아라.

엄마는 이 힘든 삶 속에서 길을 잃었던단다.

이제 너희들은 엄마가 없지만 기억하렴.

엄마는 나쁜 엄마가 아니었던단다.

단지 이 삶이 나를 멀리 데리고 가는구나.

잘 있으렴 나의 아이들아.

안녕, 나의 가족들.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올란데 진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HIV 감염자로 단식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석방된 후 그중 절반이 사망하였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있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같은 편지를 써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아들이요, 이것은 나의 딸이요, 이것은 나의 희망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꿈이다. 이것은 나의 삶이었고, 이것이 내가 살았어야 할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한 죽음의 모습이였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교제의 식탁 앞에서 이러한 기원을,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애도를, 이러한 장송가를 불러야 할까? ➤

환대의 식탁에서

각국에서 식탁을 나누는 방법:
여섯 나라에 사는 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환대의 식탁은 어떤 모습에
어떤 맛이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 브라질 • 클라우디오 올리버
- 짐바브웨 • 엘리자베스 맘보
- 한국 • 김성희
- 미국 • 코친 A.웰치 주니어
- 니카라과 • 자이로 콘데가
- 독일 • 클레멘스 베버



넉넉한 식탁을 만든다는 것 · 브라질, 쿠리치바

클라우드 오리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원이 부족하고 욕구는 무한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배척하고 벽을 쌓아 올리며 폭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제한선을 두고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기 보다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더 넉넉한 식탁을 만드는 것으로 이 풍요로운 창조 세상을 알아가고 있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친구들을 초대해 긴 식탁 위에 기막히게 맛있는 유기농 국수 파스타와 우리 농장에서 키운 농작물을 가지고 점심, 저녁으로 상을 차리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 벌여졌던 분열에 대한 해답이다. 정직하고도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

며 가장 오랜 기독교 전통을 기념하는 것이다.

교사, 이웃, 젊거나 늙은 노동자들이 모두 우리가 차려놓은 긴 식탁에 앉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음식과 이야기, 삶을 즐기면서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준비된 재치(eutrapelia)'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을 쾌활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아주 간단한 감자를 반죽해 만든 노키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진솔한 태도로 대접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물 한잔, 미소만으로도 우울하게 찾아온 방문객에게 희망을 주고, 브라질 당근케이크 한 조각으로도 친구를 새로 사귄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과 현대의 식탁에서 구원되는 진실하고 분명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와 카티아 올리버는 브라질 쿠리치바의 공동체 카사 다 비데이라(포도나무의 집)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난 25년간 예수의 뒤를 따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축하 · 짐바브웨, 네고바노

엘리자베스 맘보: 우리 마을의 이름은 네고바노이다. 사진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가족, 친구들과의 상봉을 축하하는 모습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항상 음식을 돌린다. 그리고 축하의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와 노래, 특히 노래를 엄청 부르는데 춤도 빠질 수 없다!

매번 이런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옥수수 가루를 끓는 물에 반죽해서 사드자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닥불에 올려 천천히 요리를 하는데, 고르게 익히는 것이 관건이다. 짐바브웨의 주식인 사드자는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음식이지만 다른 요리하고도 잘 어울려서 땅콩버터 소스를 얹은 밥, 땅콩단호박, 케일, 토마토 샐러드, 약간 매운 스투에 넣은 닭고기나 염소고기 등과 함께 즐겨 먹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기른다.

아직도 짐바브웨 시골에서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지도층은 바뀌었지만, 수년째 가뭄이 들고 정부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서 서로가 있으니 말이다.

엘리자베스 맘보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나 짐바브웨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방문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 · 한국, 서울

김성희: 서울에서 떨어진 시골에 살다 서울로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장모님과 처남 내외 조카들이 방문해 밥상에 둘러앉았다. 무슨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느티나무 고목을 버리기 아까워 잘라 만든 테이블이 밥상 겸 찻상이다.

현미와 잡곡이 섞인 밥과 김치, 나물무침과 불고기, 된장찌개. 늘 먹는 밥상 그대로다. 좁은 거실에 많은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다 보면 서로 무릎이 맞닿고 젓가락이 부딪치기도 한다. 어린 조카를 안고 있던 처남댁이 밥을 먹기 힘들면 옆에 있는 올케가 아이를 대신 안아주기도 한다. 밥상은 그저 함께 앉아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다. 밥상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유기체처럼 따

뜻한 온기를 유지한 채 밥상에 둘러앉은 각자에게 살아갈 힘을 나누어준다.

꼭 가족들만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은 것은 아니다.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의 동료들이 방문해 함께 밥을 먹는 일도 잦았다. 지나가는 길손에게도 스스럼없이 정성껏 밥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다.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레 따뜻한 밥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점점 그런 일이 드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은 놀랍도록 늘었는데 함께 밥상에 둘러앉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줄었다. 못내 허전하고 서운한 '풍요'의 길로 우리 사회가 달려가고 있다.

글쓴이 김성희는 농부들, 소비자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협동조합 운동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식사 · 미국, 미시간 매디슨 하이츠

코진 A. 웰치 주니어: “음식 색깔이 다채로울수록 몸에 좋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나도 속담대로 새 빨간 딸기와 샛노란 바나나에 생크림을 얹은 블루베리 팬케익을 주문한다.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단 크림만 빼고 딸기와 바나나를 얹어 주문하신다. 확실히 난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편이다.

내가 17살 때 죄를 저지르고 20년 형을 받아 출소할 지 1시간이 조금 지났다. 아버지와 나는 체인점인 밥에 반스 식당 한 켠 뽀뽀한 갈색 쿠션에 기대어 마주보며 앉았다. 우리가 90년대 이곳에서 함께 식사했던 때보다 지금 더 시각이나 성향 면에서 소원해졌다. 그때 이후로 겪어낸 240개월간의 고통과 성장이 일부 그 간극을 메운다.

늦은 아침 햇살이 식탁 위 그릇을 비추고, 이곳에 앉아 첫 식사를 하는 지금, 기쁨과 슬픔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번 재회에서 빠진 사람은 어머니

다. 내가 출소하기 68일 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노라며 15분간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정확히 이를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이상하게도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여전히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가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에서 알록달록한 오믈렛, 녹색 피망, 샛노란 달걀을 콧속 찌시며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감옥을 떠나는 차에서 아버지는 라디오를 트셨는데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다. “난 항상 엄마를 사랑할 거예요. 엄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지금 식당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며, 고마워하고 슬퍼하며, 웃었다가 다시 침묵하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여전히 그 노래가 맴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의 휠체어가 있었을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본다.

코진 A. 웰치 주니어는 시인이자 편집자, 미시간 대학의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섬축제 · 니카라과, 오메테페섬

자이로 콘데가: 오메테페섬은 작은 화산섬이다. 9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 산호세 델 수르의 가톨릭 교구 사람들은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를 다소 색다르게 기념했다. 우리는 72명의 어린 학생들, 그 중에서 특히 특하면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피나타, 선물, 게임 등을 하며 잔치를 즐기고 오메테페섬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오메테페 돼지를 잡아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넉넉히 대접했다.

“오메테페, 평화의 안식처”라는 노래는 니카라과 호수의 내 고향 섬을 칭송하는 노래로 매우 자주 인용되는 노래다. 수 세기에 걸쳐 오메테페는 그 명성을 유지했다. 심지어 유혈이 낭자했던 산디니스타 혁명과 콘트라 반군의 반란을 겪으면서도 오메테페섬에서는 전투가 별

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화는 2018년 중반이 지나면서 무너졌다. 경찰과 친정부 무장단체가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위대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 폭행, 체포가 이어졌다. 오메테페섬은 유럽의 생태관광객들의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특성상 호텔, 식당, 산악 가이드 회사 등이 많았는데, 폭력적인 진압의 결과, 모두 문을 닫았다. 나의 부모님처럼 전통적으로 소농 출신인 35,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벌어도 없이 약과 생필품들을 구하러 다녀야 했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급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다. 아이들이 가장 약한 존재들이니 말이다.

자이로 콘데가 모랄레스는 오메테페섬의 원주민으로, 니카라과 학교에 무료 도서와 교육을 지원하는 쟁기출판의 엘 아라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손님 · 독일, 베를린

클레멘스 베버: 방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고, 식탁도 차렸다. 식사 메뉴로는 다진 쇠고기와 양파로 만든 미트로프와 으깬 감자, 독일식 김치인 사우어크라우트를 마련했다. 오늘은 베를린의 작은 공동체에서 초대인 밤이 열리는 날이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른 6명, 어린이 4명, 장기 손님 1명이 함께 살고 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초대의 밤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보내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들떠 있다. 우리는 몇 명이나 올지 전혀 감이 없다. 가끔은 2명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15명이 방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음식은 항상 넉넉하다.

우리는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다. 주로 짧은 글을 읽고, 저녁을 마치면 찬양을 하거나 때로는 놀이, 그리고 항상 짧게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세 사

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아주 간단하다. 주님께서 오시는 손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문을 열고 기다린다.

노숙자인 톰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이다. 톰은 “이곳은 멋진 곳이에요.”라며 좋아한다. 고아로 자란 한스는 이곳에서 가정을 찾았다며 감사해 한다. 마약중독자였다가 회복 중인 리카도는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다. 상반부는 황금빛인데 하반부는 어둡다. 은색 길로 상징되는 예수께서는 이 두 개를 하나가 되도록 합치신다.

함께하는 우리의 밤을 표현하기 딱 적합한 표현이다. 결국 전체가 성령께서 끌어 주시는 것이니 말이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사 속에서 우리 집에서 마치 우리가 손님이 된 느낌이다.

클레멘스 베버는 아내, 아이들과 함께 프렌츨라우어 베르크의 기독교 풀뿌리 공동체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왜 예멘은 굶주리는가

현대 기근의 양산

다니엘 래리슨

오 늘날의 기근은 절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껏 인류는 흉년 혹은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을 때 기근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기근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부주의 때문도 아니다. 정치가들은 중

중 그들이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준다. 21세기에 기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엄청난 조직적인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류에게 행해지는 또 다른 대규모 잔혹행위와 범죄 가운데

다니엘 래리슨은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American Conservative)>의 선임편집자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다. 인류에 대한 그러한 범죄가 지금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멘은 4년 이상의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왔다. 오늘날의 기근에 대한 귀중한 역사를 다룬 책인 “대규모 기아 Mass Starvation”(한국어 미발간)에서 알렉스 드 왈은 우리에게 “재앙을 대규모 기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행동 즉,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예멘의 기근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하디 대통령 정부의 경제적 봉쇄와 그 밖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발생하였다. 하디는 30년 넘게 예멘을 통치하다 2011년 국민 저항으로 쫓겨난 살레의 후임자였다. 하지만 하디 자신도 후티족으로 알려진 안사룰라에 의해 지난 2014년 9월에 일어난 쿠데타로 당시 축출되었다. 2015년 이른 봄 사우디아라비아 이끄는 아랍정부동맹과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하디를 권력에 복귀시키고 후티족을 수도에서 몰아내는 군사개입을 시작하였다. 한편 지난해 후티족이 살레와의 관계를 파기하고 그를 살해함으로써 그 동안 편의를 위해 유지되었던 둘 사이의 연합은 사라졌다. 현재까지 아랍국가동맹은 당초의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 반대로 예멘의 시민들은 끝 모를 어둠의 심연으로 던져졌다.

사우디 동맹의 폭격으로 인한 국가사회시설의 파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동맹의 해운과 항공 봉쇄, 중앙은행의 아텐으로의 이전, 예멘 화폐가치의 폭락, 2년 이상 공무원 임금 미지급 등 사실상 예멘의 경제는 붕괴되었다. 이는 대부분 예멘 주민들의 더 깊어진 빈곤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 무려 천오백만 주민은 식량부족으로 기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에 식료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빈곤해진 주민들에게 이는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이다.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전쟁은 공습과 포격보다, 어찌면 막을 수도 있는,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 이후 최소 8만 5천명의 아이들이 굶주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 이들은 기근의 재앙 가운데 가장 취약한 존재이다. 영양실조가 그들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예멘의 일곱 살 소녀 아말 후세인의 슬픈 이야기는 전쟁의 역경에 처한 수백만 어린이를 대변한다. 뉴욕타임즈는 2018년 10월 하순 처음으로 극도의 굶주림과 설사에 시달린 소녀의 잇을 수 없는 피폐한 몸의 사진과 상태를 보도하였다.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뒤 아말은 사망했다. 아말의 가족은 사우디 동맹국의 공습에 의해 몇 해 전 집이 파괴된 이후 자기의 나라에서 난민처럼 생활해 왔다. 자국 유민들을 위한 캠프에서 소녀는 천천히 쇠약해졌다. 수백만의 예멘 아이들은 아말처럼 심각한 영양실조이고 가족 역시 아말의 가족처럼 가난하다. 설령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전쟁과 기아의 체험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하고 삶은 영원히 상처 입었다.

기근 발생의 정치적 원인이 있듯이 정치적 해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끔찍한 기근은 다른 대규모 재앙이 세상의 관심을 받은 것 처럼 주목 받지 못한다. 기근으로 시달리는 국가들은 언론에 자주 다뤄지지 않는다. 설사 보도가 있더라도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많은 나라들이 기근이 다시 발생할 진짜 위험이 있지만, 다른 정부들은 기근발생에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재앙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다. 세계는 기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거의 성공한 이후 그것의 참혹한 귀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편지

리처드 조이너

코니토 가족
생활센터에
서 글씨와
동료들

노 받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코니토 마을에는 영양가
가 높고 질이 좋은 음식을 구해 먹을 수 없는
가정들을 마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을

인구의 사분의 일은 미국 정부에서 '극빈'하다고 규정하는 층에 속하지요.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많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답니다. 마을 병원에서 섬기는 목사로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애통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집으로 오고 있던 도중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서 아픈 마음을 위로해 보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속삭이셨지요. "눈을 뜨거라! 주변을 둘러보라 말이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에는 푸르른 밭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밭들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노예로서 피땀 흘리며 일한 힘겹고 괴로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밭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 한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힘든 역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마을이 힘을 합쳐 이 땅을 함께 가꾸고 수많은 가족들이 끈기와 창의력, 작년의 씨앗들로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었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니토 가족생활센터가 시작된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체험을 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은 땅을 가꾸고 땅과 한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사회적, 영적으로 성숙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 나가고 있

지요. 또한 직접 기른 귀한 채소, 과일, 꿀과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병원, 학교들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땅과 프로그램들에 투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코니토 가족생활센터가 시작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기른 음식으로 마을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음식을 매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개인 개인의 수입 평균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고 그 소득을 나눔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졌지요. 외부에 의지하지 않으니 우리는 더욱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는 노동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덕분에 전깃불이 유지되고, 밥상에 따뜻한 음식이 마련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우리 마을이 함께 축제를 하려고 모일 때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축하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일 때에 항상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채소들을 자라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함께 모여 평화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이곳 코니토 마을에서 작물을 기르고 함께 식사하는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도 같습니다.

리처드 조이너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코니토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코니토 가족생활센터에서 공동체 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5년 CNN 올해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독서

좋은 농부의 정의

필립 브리츠

좋은 농부는

1. 자신의 농장이 하나의 유기 공동체로서 농장의 모든 부분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 비옥한 토양이 농장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비옥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깨질 수 있는 균형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3. 부엽토가 토양을 거름지게 하는 원천임을 알고 있다.
4. 농장의 모든 땅이 제각각 가장 적합한 쓰임새가 있으며,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 적응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기후가 농작물의 소출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으로 인간이 제어할 수 없기에 저항하기 보다는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병충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방이 우선이며, 불가피할 경우 해충 약이나 농약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7. 풀이 땅의 가장 중요한 작물이란 사실을 알기에 영구 목초지를 잘 관리하며 단기 목초지는 땅의 기운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한다.
8.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구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육종 기술을 활용해 좋은 품종을 개발한다.
9. 열정과 집념 그리고 조직 능력을 갖추고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록을 잘해야 한다.
10.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자신이 인간이 만들지도 않고 변경할 수도 없는 불변의 법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지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업적은 단순히 그 법칙에 최대한 순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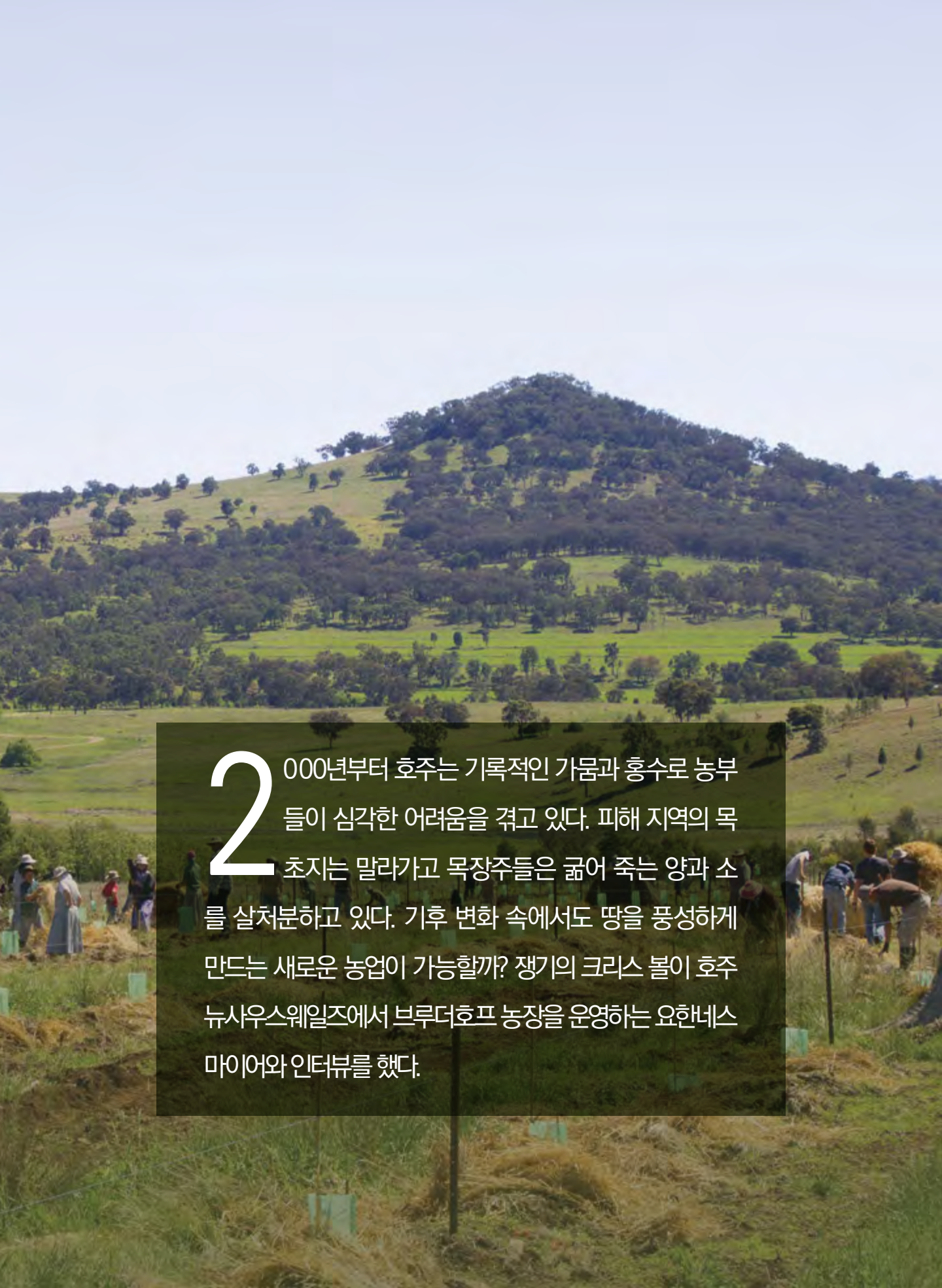
아수카
하쉬키,
순무

필립 브리츠(1917~1949)는 농부이며 시인입니다. 위의 글은 그의 수필과 시를 모아 펴낸 새책 "부리박힌 물가: 시와 비전을 가진 농부의 통찰 Water at the Roots: Poems and Insights of a Visionary Farmer"(플라우, 2018년 3월, 한국어 미발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가뭉 극복하기

호주의 한 목장이
땅의 옛 모습을 회복해서
가뭄에 대처하는 법



2000년부터 호주는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로 농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의 목초지는 말라가고 목장주들은 굶어 죽는 양과 소를 살처분하고 있다. 기후 변화 속에서도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농업이 가능할까? 쟁기의 크리스 볼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브루더호프 농장을 운영하는 요한네스 마이어와 인터뷰를 했다.



요한네스
마이어

쟁기: 2019년 5월 덴쏘니아 브루더호프가 시작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이 땅에 가장 적합한 농업을 하기 위해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 온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한네스 마이어: 1999년 브루더호프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던테이블랜드의 인접한 두 개의 농장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은 농업 지역으로 비교적 비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가정과 청년들 몇 명이 집을 싸서 비행기에 올랐고 그렇게 덴쏘니아 브루더호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열정은 넘쳤지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첫 해는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 기존 농장 관리인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 대다수 농장처럼 덴쏘니아 농장도 복합영농 방식으로 소와 메리노 양을 방목하면서 겨울에는 곡물, 여름에는 콩, 수수, 옥수수, 해바라기 등 기존 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해에는 작물 농사를 이어서 지었고 수확도 좋았지만 곧 목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몇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기후조건이 좋은 해일지라도 농장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과 농기구 유지관리비 외에도 제초제, 종자, 비료 등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첫해는 양모 생산 수익으로 약품과 양털 깎는 비용을 감당했지만 점점 커져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할

게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건축을 할 때나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일 등을 할 때는 농장 일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수익 사업으로 간판 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현재 220명이 사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브루더호프의 삶의 방식은 필립 브리츠같은 초기 개척자들 때부터 늘 땅과 연결되어 왔습니다.(25쪽 참조) 공동체 초기부터 40년간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 수익 대부분은 제조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덴쏘니아 브루더호프의 설립은 땅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덴쏘니아는 이후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략 22km²의 농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목초지이고 4분의 1은 경작지, 나머지는 숲이 우거진 비탈과 험준한 땅으로 제한적으로 방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땅을 저희가 전부 감당하기에는 벅찼죠. 그래서 살림 규모를 축소하고 몇 가지 운영 모델을 시도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방목 업자에게 공동체 땅을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우리 땅에서 최대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 땅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몇 년도 안 되어 과방목으로 인해 땅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4년 11월 덴쏘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대가뭄으로 이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뭄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2010년 가을까지 지속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공동체는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영국은 비가 축복 보다는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날마다 비가 오길 기다리며 서쪽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기도 했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긴 했지만 땅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2007년 결국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시내엔 덴쏘니아의 유명한 상징인 스완파크 기슭의 넓은 범람원을 가로지르며 버드나무가 줄줄이 서 있는 작고 아



2000년에 찍은 맨쏘니아 항공 사진(좌)과 회복되고 있는 땅에서 규모가 커진 공동체(우)

름다운 시내였습니다. 녹조로 가득한 웅덩이에 놓여, 메기, 민물 대구 같은 물고기들, 어떤 것은 75cm나 되는 물고기가 배를 보인 채 죽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침식되고 무너져 내리는 둑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개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2009년에 또다시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고기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씨가 말랐기 때문이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가뭄을 겪으면서 공동체는 죽어가는 땅을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 힘든 탐구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호주 대가뭄이 그 정도로 유례없는 사건이었나요? 가뭄이 호주에 늘 있지 않았던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호주 기후가 험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뭄과 홍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농부들은 10년 동안 두 해는 풍작, 서너 해는 평균작, 그리고 서너 해는 극한 흉작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호주의 변덕스러운 날씨 말고도 기후 변화와도 싸워야 합니다. 1950년 이후로 평균 기온이 기록적으로 상승해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는 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 발원지로 65,000년 전에 최초로 호주 원주민이 정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긴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축소해보자면 1788년 최초 유럽 이주민들이 보타니 만에 닻을 내린 게 지금부터 약 7분 전쯤 됩니다.

유럽 이주민이 당시 상황을 일기나 그림으로 자세하게 남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그린 호주는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하였으며 3백에서 4백 종의 식물이 자라는 자연 초지가 있었습니다. 이주민들 기록에 따르면 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때조차도 계곡에는 초목이 푸르고 무성했다고 합니다.

또 비옥한 땅이 해안까지 쭉 이어졌으며, 산천이 주기적인 기후에서 오는 혜택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었고 물을 품고 저장하는 기능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표토의 두께가 1에서 2m나 되어 갈라진 틈에 정글도를 집어넣고 거기다 팔을 전부 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흙이 너무 폭신해서 가뭄에도 목초지에 수레바퀴 자국이 몇 년 동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탐험가들은 호주 토양이 유럽과는 매우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땅에 흡수되고 남은 물이 큰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반면 호주에는 키가 3m가 넘는 갈대가 가득한 광활한 범람원이 있고, 띄엄 띄엄 웅덩이가 있는 늪지대와 물이 계곡을 따라 아래로 흐르는 여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천 주변 땅이



통전적관리
전과후의목
장과 저수지:
2007년(좌)과
2015년(우)



사방 40km에 이르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품고 있다가 가뭄에 흘러보냈습니다. 댐쏘니아 시내를 따라 볼 수 있는 습지같이 좀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펀지처럼 물을 품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식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갈대 및 다양한 다층식물들이 땅의 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초기 유럽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식 농사방식을 들여와서 늪의 물을 빼고 배가 다니도록 수로를 열고, 계곡에서 굽이 딱딱한 가축을 방목하고, 표토를 갈아서 단일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품고 염분을 저지하던 땅의 자연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농업으로 인해 하천 주변 땅이 하던 기능이 파괴되면서 10세대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 토양침식과 사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호주는 표토가 아니라 심토에 경작을 합니다. 예전에 땅을 비옥하게 만든 것은 식물과 동물 다양성이었습니다. 땅에 물을 가두고 물의 흐름을 늦추며 범람원까지 비옥하게 만들고 염분을 조절하는 식물이 사라지면서 비가 올 때면 물은 어마어마한 양의 귀중한 표토를 씻어 내리며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가요? 호주 농업이 그 정도까지 위기상황인가요?

저는 호주 동부에 사는 농부로서 경험에 근거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에 널리 보도된 것처럼 농부들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의 결과로 표토 식물이 거의 없고 가축은 아사하고 있고 산불이 증가하고 어디서나 먼지바람이 불니다. 많은 농부는 수백만 년 만에 찾아 온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가축의 수를 상당히 줄여야 했고 1-2년 전부터 건초나 사료를 제한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농부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농부들에게 수억 달러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봐도 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너무 부족합니다.

국내의 많은 농부의 경험과 전 세계 학자들과 농부들의 의증을 통해서 제가 내린 분명한 결론은 이런 위기가 대부분 관행농법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농법은 땅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특히 호주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농업발전으로 식량 증산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긴 합니다. 인류는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비료 덕에 식량 생산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으니 표면적으로 보면 놀라운 진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드러나는 사실은 산업화된 농업이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과 소비자인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서 경험하듯이 그런 농법은 어떤 시점부터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땅을 지나치게 갈아엎는 농법을 예로 들어보죠. 쟁기질하고 정지작업을 하고 씨레질을 하면 식물의 영양의 필수 원천인 토양 미생물들이 비바람에 노출됩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토양이 쓸려나가고 토양 탄소가 유실됩니다. 호주의 땅은 점토 함량이 높고 무거운 건조기에 균열이 생기는 토양으로 침식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호주 뎀소니아에서 농사를 시작한 초창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번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기만 해도 갈아엎은 토지에서 몇 인치의 표토가 사라집니다.

농업의 산업화와 함께 거대한 들판에 한 가지 품종을 재배하는 단일경작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원래 윤작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식물이 뿌리 분비물을 통해 토양 생물에게 주는 혜택을 무시하고 복합비료를 쏟아 부어 뿌리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토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화약제조용 질산암모늄을 대량생산하던 대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질산암모늄이 질소 비료의 좋은 원료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영양소 질소, 인, 칼륨을 합성해 복합비료를 만들어 작물에 쏟아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작물이 좋아하는 듯했습니다. 더 크게 자라고 소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타격을 입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식물과 토양이 당분과 영양분을 서로 교환하며 공생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합비료로 인해 영양소 순환계가 파괴되어 식물이 영양이 풍부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많은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영양이 몹시 부족한 농산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영양을 섭취하려면 훨씬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건강 문제의 증가가 이런 영양 결핍이 연관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년 동안 토양에 쏟아부은 화학물질이 또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생태계와 인류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구 식단은 유독한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는 발암물질로 의심되는데 어린이 시리얼에서부터 독일 산 맥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식에서 검출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식수 허용기준치의 300배까지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2016년 연구에 의하면 93%의 미국인 소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자가면역질환, 비만, 당뇨, 심장병, 불임 그리고 자폐 등의 많은 서구식 질병 증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업농의 한 측면인 인공 관개 시설도 토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가 특히 심합니다. 인공 관개 시설로 인해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높아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수록 토양에 염분이 축적되어 넓은 지역의 농지가 훼손됩니다. 대수층의 지하수는 농업용수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매년 가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농업용수가 나라 전체 물 소비의 50-70%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호주 매체가 머레이달링 강의 생태계 재앙을 집중 보도했는데 원인은 농업용수 관리 실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를 멈추고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땅이 스스로 치

개울 되찾기

요한네스 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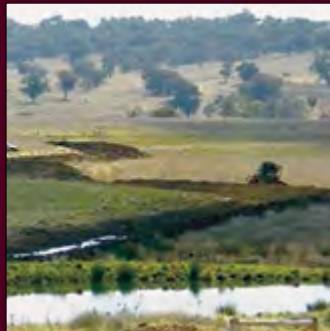
1 2007년: 심하게 침식된 개울 바닥에 식물이 별로 없었다. 일반적으로 방목하는 가축들이 개울가를 짓밟아 침식이 악화하였다. 홍수가 나면 빠르게 흐르는 물이 침식을 가속화하고 표토와 양분들을 떠내려 보내고 물의 수위는 더 낮아지게 된다.



5 울타리는 가축이 개울둑을 무너뜨리고 개울 바닥과 흙을 잡고 있는 식물을 훼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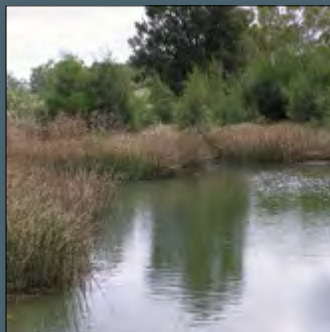
2 2015년: 왼쪽 2007년 사진과 같은 장소. 지금은 갈대와 습지의 여러 식물들이 물의 흐름을 늦추면서 토지의 염류화를 억제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3 독들은 넘치는 물들을 수로를 통해 범람원으로 내보낸다. 범람원들은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4 물이 새어 나오는 물막이. 자연재료를 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도록 만든 물막이는 일차적으로 물의 흐름을 늦춘다. 물막이는 유속의 세기를 줄여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6 2016년: 자연과 협력하기. 우리는 개울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땅이 유럽인 이주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렵듯이 엿볼 수 있다. 생태적 다양성과 주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개울의 모습

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원칙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이런 주요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도 어떤 밭이야할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댄소니아 공동체는 주변 지역보다 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닌데 가축의 먹이가 넉넉하고 댐에는 물도 차 있는 반면 주변 이웃 농장은 땅이 타들어 가고 있고 가축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어떤 식으로 땅이 건강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생태계 건강의 한 척도는 식물이 햇빛을 당분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당분은 식물 성장에 필요하지만 토양에도 공급되어 부식토로 바뀌는데, 이 부식토가 표토의 놀라운 핵심 성분으로 미네랄과 양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네 배나 무거운 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활동을 통해 부식토와 토양 유기물이 축적되고 토양 탄소가 증가하며 땅은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품게 됩니다. 빗물이 흠을 쓸어가며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스며들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계산에 따르면 현존하는 토양 탄소 1%당 1만 제곱미터의 땅이 140,000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유럽인 이주 전 평균 토양 탄소 함량 추정치는 7-20%였습니다. 지금은 1% 미만입니다. 이것을 5%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아직 유럽인 정착 이전보다 밀도는 수치이지만 40㎡의 땅이 올림픽 규격 수영장 크기의 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토양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목초지 임대로 인한 과방목으로 초지 훼손을 경험한 후에 직접 목축을 하는 것이 해결책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통전적인 방목관리(holistic grazing management)의 개념과 그것을 제안했던 앨런 세이버리(Allan Savory)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짐바브웨의 생태학자이며 환경 운동가이자 축산 농부로 가축의 수가 사상 최저일 때에도 어떻게 과방목이 아프리카 땅을 황폐하게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발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축들이 포식 동물에게서 떼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의 수를 일정 수준 딱딱하게 유지했는데 포식 동물들이 사냥으로 몰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축의 수를 전통적인 무리의 밀도와 비슷하게 유지하면 땅이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의 영양이나 북미의 대초원 지대의 물소는 사자나 늑대의 괴롭힘 속에서 대규모의 뿔뿔한 수의 무리로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발굽으로 뭉개는 일 이상을 합니다. 한 지역에서 신속히 풀을 뜯어먹고 이동하기 전 배설물로 거름을 주어 식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줍니다. 이런 지역은 땅이 비옥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축적된 수 미터의 소중한 표토가 지나친 개간으로 파괴되어 1930년대에 대가뭄이 오자 모래 폭풍에 실려 유실되고 맙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이것이 통전적인 방목 관리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거대 목장을 더 작은 규모로 나누어 좀 더 많은 가축을 짧은 기간 동안 방목을 합니다. 통전적 방목은 치밀한 계획과 기록 관리가 필요하고 가축을 자주 이동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땅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생농법입니다.

그런 농법이 가뭄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2006년 즈음 피터 앤드류라는 호주인을 알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토양 재생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터는 땅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터는 자신의 개념을 자연순차농법(Natural Sequence Farming)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온 식구가
올리브
나무 심기

저는 2007년에 대가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피터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웃의 땅으로 데려와서는 바삭 마른 개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울을 따라 그의 땅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곧 물웅덩이가 보였고 푸르른 범람원과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농장에 도달할 즈음 개울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막처럼 마른 땅 한가운데 뻣뻣한 나무와 관목으로 둘러싸인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동물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개울을 따라 반대편 경계로 가보았습니다. 피터의 땅에서 300m 채 되지 않는 곳이었는데 개울 바닥이 다시 드러나있었습니다. 저는 땅의 생태계와 물 사이의 연관성이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댄소니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감동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피터 앤드류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피터의 조언을 받으며 자연순차농

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강 가까이에서 떼어놓아 개울이 회복되도록 해서 강둑과 범람원을 따라 식물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많은 나무를 조림했습니다. 홍수때에는 이 나무들이 물의 흐름을 늦추고 양분을 잡아주었습니다. 목표는 이곳이 수 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연못과 갈대밭이 자연적으로 재생산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위쪽 경사지는 자연적으로 하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높이로 둑을 둘러쌓아 비가 많이 오면 가들 수 있게 했습니다. 둑이 넘치면 계획적으로 입구를 열어 물이 천천히 흘러 토양이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양분들도 비탈로 흘러 고르게 퍼집니다. 둑 아래에는 나무를 심어 그 양분을 이용하고 그늘을 제공하여 토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게 합니다. 개울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계곡에는 연못과 갈대밭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 물의 유속을 늦추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지난 20년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압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약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바람이 빨리 불수록 더 많은 수분을 빼앗깁니다. 나무는 각종 서식처와 그늘을 제공합니다. 나무가 있는 곳의 토양은 목초지보다 60배 이상의 빗물을 흡수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표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양분을 빨아올립니다. 다 자란 나무는 매년 7%의 바이오매스를 토양에 저장하는데 이는 지표 식물에 유익합니다. 나무는 또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산마루를 따라 도로에도 심었습니다. 토종과 외래종을 섞어서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가축이 나가지 못하게 나무로 울타리도 쳤습니다. 15년 전에 심은 나무가 지금은 소매와 야생 동물들이 그 아래 지나갈 정도로 컸는데, 높은 지대의 나무 그늘에 싸놓은 배설물 거름을 빗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땅에 넓게 거름을 줍니다.

그런 조치들로 인해 눈에 띄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이지요. 새들은 생태계 건강의 척도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덴쓰니아의 야생조류관찰자가 10여 년 전에 조류의 수를 세기 시작했을 때 약 100여 종이었던 새가 지금은 그 수가 150종에 이릅니다. 새롭게 관찰된 50여 종 가운데 11종이 건강한 습지대와 물이 많아진 것과 연관이 있고, 15종은 꽃나무와 관목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의 이동과 전체적인 생태계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3개월 전 가뭄의 여파로 독의 물들이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초지는 여전히 푸신하고 풀들도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토양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공동체의 물 사용량 대비 우물물의 수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강수량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물은 과거 가뭄 때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물이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 개울이 공동체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의 유속은 분당 15리터인데 우리 농장을 빠져나갈 때는 분당 50리터입니다. 심지어 가뭄에도 우리 땅으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양이 세배나 됩니다. 우리 땅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가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에서 큰 자극과 용기를 얻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호주 땅의 표토가 어마어마하게 유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토가 만들어지는 데 수천 년이 걸렸을 텐데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는 1인치의 표토가 생성되는 데 3백 년에서 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토양은 썩은 나뭇잎과 같은 물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표토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와 토양으로 스며드는 탄수화물, 비타민, 유기산 그리고 다른 양분 등의 삼출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 가운데 30-40%를 뿌리를 통해 토양으로 내보내고 대신 양분을 흡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은 곰팡이,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곰팡이와 뿌리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균근(식물의 뿌리 부분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는 균뿌리)과 같은 토양생물에 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런 토양생물들은 당분을 섭취해 부식으로 바꾸는데 이것이 바로 표토입니다.

이처럼 표토는 실제로 꽤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식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물 다양성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우리가 농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최첨단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식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명 퀴럼센싱(quorum sensing, 동종 미생물 감지현상)이라 불리는 유발점에 도달하는데 그때 표토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 유발점에 이르러



붉은머리오울새: 2006년 이후 가뭄이 있던 해를 포함해 조류관찰자가 매년 대어섯 종의 새로운 새를 관찰해왔다.

면 식물이 얼마나 다양해야 할까요?

미생물학자들은 식물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식물은 각기 다른 뿌리 삼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그 삼출물은 특정 토양 양분과 결합을 합니다. 적게는 12가지만 있어도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고 40종이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덴쓰니아에 있는 가장 좋은 목초지에는 15에서 20종의 식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수백 종에 달했다고 하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정도가 돼야 표토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물을 저장하고 가뭄에 흘러보낼 정도로 충분히 다양한 식물을 가진 목초지가 됩니다. 문제는 척박한 땅에서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퇴비 추출물을 뿌려 토양에 미생물을 투입해도 다양한 생물의 생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유기화합물을 혼합한 생물학적 자극제로 기존 토양 생물에게 양분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애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토지염류화 억제입니다. 호주의 강수에

는 염분이 섞여 있어서 토지의 염분을 증가시킵니다. 호주에는 거대 강이 없기에 염분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염분을 줄이지 않으면 토양이 황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습지대 갈대밭과 다양한 식물들이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표 아래 담수막을 형성하여 염분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 토양 생물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회복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려면 건강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작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덴쓰니아 공동체는 십 년 전에 작물 농사를 포기하고 토지를 목초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 씌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작물 농사 모델이 있습니다. 이안과 디해거티라는 농부가 호주 서부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집약적으로 방목한 후에 그 자리에 밀을 파종해서 겨울 동안 키워 봄에 수확합니다. 수확한 다음에는 그곳에 가축을 넣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들은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합니다. 곡물 수확량은 화학비료를 쓸 때 보다는 적지만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지 토양 탄소 비축량이 늘고 토양 생물이 계속 증가합니다.

관행 농업 농부들 가운데 농법전환을 하려 해도 대가가 너무 크다고 주저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나가십시오. 목축업을 하고 있다면 가축을 계속 새로운 초지로 옮겨 다니는 관리방법을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물 농사를 하고 있다면 성공적으로 순환농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 배우십시오. 첫 두 해 간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곧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비용이 점차 줄어들고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창조주는 인간이 파괴한 자연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회복하도록 놀랍게 자연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호주 정부 차원에서 농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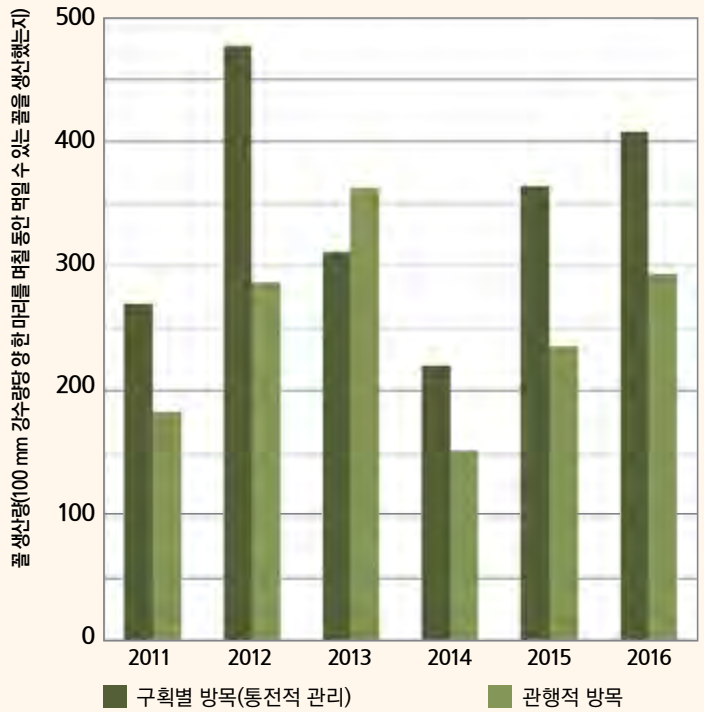
첫째로, 정부 차원에서 재생농업을 긴급 사안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교육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생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과 농민 교육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환 목축을 하려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큰 논쟁점은 아마도 물 사용과 관리 방식일 겁니다. 현행법은 가능한 많은 물을 저수지로 모아서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에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학자와 정치인, 관리, 농부 간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재생농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보셨나요?

물론이지요. 얼마 전 지역의 한 농업 관련 상점에서 수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직원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랬더니 그가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그게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인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는 제초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농장 아래 사는 팀 라이트라는 농부는 25년을 재생농업을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집단으로 완고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성향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지 생산성

덴쏘니아 농장의 실험 방목장 4곳의 6년간 평균 생산성을 보여주는 표이다. 각 방목장은 두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 곳은 통전적 관리법을 적용해서 가축을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1-5일 간격으로 번갈아 이동하고, 또 한 구역은 관행적으로 방목한다. 구획별 방목으로 식물이 성장할 시간이 생기고 뿌리가 튼튼하게 되며, 토양이 건강하게 되고 생산성이 증가한다.

시간이 갈수록 덴쏘니아 브루더호프가 지역 원주민 사회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농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호주에서는 공적인 모임에 ‘웰컴투컨트리’라는 의례로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원주민이 모임이 열리는 땅의 전통적인 관리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부족의 전임 장로와 현 장로에게 예의를 표하는 의식입니다. 땅을 잘 돌보아 후대에 더 좋은 상태로 물려준다는 땅의 청지기 개념을 우리 공동체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원주민 사회와 우리의 공통 기반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덴쏘니아에서 토양을 돌보는 일은 그



요한네스가 2018년 9월 재생농업 모임 현장 방문에 참가한 지역 농부 300명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식물을 이용한 표토 개량에 관한 연구로 지난 10년 이상 덴쓰니아의 농장에 영감을 준 토양 생태학자 크리스틴 존스 박사가 참여했다.

처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 하는 시도들과 자연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하는 일은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 가운데 단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의 부르심과 그분이 가신 길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을 돌보는 것은 단지 들의 꽃과 새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병자와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와 핍박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신실해지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 특히 원주민들을 이해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찰스 매시가 쓴 “개개비의 울음소리 Call of the Reed Warbler”(한국어 미발간)는 재생농업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독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륙에 먼저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 자체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이곳에 이주한 것이 아니며 이 호주 대륙에 제대로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재생농업은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피조세계를 돌보라고 주신 명령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서구 소비자들은 산업농이 초

래한 지구 생태계 재난에 공범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구는 시장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농업계에도 책임이 큼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이 우리 세계를 재생하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땅과 동물, 이웃들, 지구 저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다음 세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저는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네거리에 서서 살펴보아라. 예부터 있는 길을 물어 보아라.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물어 보고 그 길을 가거라. 그래야 평안을 얻으리라고 하였다.’”(예레미야 6:16)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네거리를 알아보고 옛부터 있는 좋은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는 2019년 1월 11일과 17일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엘스모어에 있는 덴쓰니아 브루더호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시벨 엔드루스, 끄는 사람들, 1929

사랑은 일이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며 진정한 공동체로 살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때 일은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사랑을 품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어디에 와 있는지 드러난다. 매일 일상에 정성을 들일 때 일은 살아 숨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험이 된다. 믿음은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실한 삶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한다. 일하는 것만큼 진정한 실천이 있을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실천은 공동의 일로 이어진다.

이런 정의와 사랑의 요구는 공동체에 건강한 일을 선사하고, 모든 사람이 매일 요구되는 실제적인 일에 기쁨이나 삶, 도구나 가래 같은 도구를 다루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이는 매일 일정 시간을 받

이나 들에서 퇴비를 파서 나르고, 쟁기질을 하거나 감자를 캐고, 수확기나, 원형 톱, 인쇄기를 다루거나, 광산, 길 공사현장, 벽돌공장, 철물공장, 목공소 등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 매일 일정 시간 육체적인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결국 육체적 건강을 선물로 준다. 특별히 지금까지 순전히 정신적인 일만 한 사람들은 비로서 참 인간이 되어감을 실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라는 작은 불빛이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한 때 각 사람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들 가슴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해 학문이나 음악, 또는 문학, 목재나 석재 안에서 빛을 낸다. 땅과 자연을 향한 단순하고 최상의 사랑을 통해 빛나고, 때로는 발일에서 그 강점을 발휘한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일은 각 사람 안에 빛나는 삶의 기쁨을 개성 있는 방식으로 드러낸다. ➤

출처: Eberhard Arnold: *Writings Selected with an Introduction* by Johann Christoph Arnold (Orbis Books, 2000)

독일의 작가이며 신학자였던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는 쟁기출판의 초대 편집장이었으며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삽화: 허진, 봄의 향기(산동네)

새로운 사랑의 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결혼과 남녀 관계에 관한 새 책이 나왔습니다. 비아토르에서 이번 달에 펴낸 《성, 하나님,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시대의 힘에 타협하지 않고, 회복을 통해 얻는 사랑과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긴 책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이 존재함을 삶으로 입증해야 하며, 세상에 새로운 현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새로운 현실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이 존재한다. 이 세상의 영에 반대하는 현실이다. 사람들이 자기 에너지를 공공선을 위해 쏟는 곳, 또 영적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누는 삶을 건설해 가는 곳 어디에서든 순결과 평화, 하나 됨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 각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자기 일생을 다른 이에게 바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요 13:34-35).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면 교회가 먼저 성적으로 진정한 반문화 형성 단계를 구체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물론 헌신된 수고가 필요하다. 순결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가 완전히 다른 조건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결혼과 가정은 계속해서 쪼개진다. 목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이 가는 길과는 반대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서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항의하거나 발언할 내용이 거의 없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진지하게 순결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서로 형제자

지은이는 결혼생활, 부모 역할, 평화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이야기꾼으로 《나이 드는 내가 좋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등을 썼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섬겼으며, 2017월 4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0년 넘게 아내 버레 나와 함께 많은 이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매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일 상에서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바라볼지, 집에서 무엇을 허락하는지, 우리와 아이들이 이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등에 적용된다.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공동체의 삶은 절제를 논하는 책 수백만 권보다 우리 사회에 더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기독교의 이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도덕 원칙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세상이 생생하게 보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경외와 책임과 손에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과 규범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디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종일관 실행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도발로 여기기 마련이다(벧전4:4). 2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관대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분개하며, 심지어는 앙심을 품을 수도 있으므로 충돌이 불가피하다(요 15:18-20). 그러나 그리

스도를 따른다는 우리가 박해가 두려워 그분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겠는가?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이끄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면, 누가 할 일인가?

우리의 소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있다. 신실하게 그날을 기다리자. 이런 기대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감으로 주고 영향을 미쳐야 한다. 모든 관계와 결혼 생활이 하나님나라를 상징해야 한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준비되어 있겠는가?(엡 5:27) 아니면 변명만 가득하겠는가?(눅 14:15-24)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서 조롱이나 비꼴을 받을까 두려워서 는 안 된다. 현재 인간 사회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나라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잡고 이끌어야 한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시간에 대한 준비여야 하겠다. ➤



성, 하나님, 결혼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지음
(비아토르, 2019. 6)

‘성, 하나님, 결혼’ 찾기 이벤트

사랑이 깊어지고 평화를 나누는 결혼을 바라십니까?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성, 하나님, 결혼》을 읽어 보세요.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의 저자가 40년 넘게 젊은이들과 부부들 곁에서 멘토 역할을 한 경험으로 풀어 낸 결혼 안내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달콤한 결혼의 설렘과 기쁨을 지탱하

는 기초가 무엇인지 5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성경적입니다. 또한 미래에 결혼이 영속하고 꽃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저자의 확신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평생 몸담았던 신앙공동체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그룹이 공부와 토론 거리로 사용하기 좋게 준비된 스테디 가이드도 함께 실려서 약혼한 분들, 신혼부부가 함께 읽고 공부하기에 좋고, 부모가 십대 자녀들과 성과 결혼의 의미를 토론하기에 좋습니다. 책 발간에 맞춰 ‘성, 하나님, 결혼’ 찾기 이벤트를 진행해 이 책을 교회의 책모임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책모임을 열기 원하시는 분들은 info@plough.com 으로 연락 주세요.



세상의 벽을 모두 허물 책

이억배 작가 인터뷰

그림은
이억배
작가의
책에서

세상의 어른들이 국경의 장벽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는 이때, 한 작가가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 이들이 언젠가는 어른들의 장벽들을 허물 거라고 믿는 이억배 작가의 그림책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이 쟁기출판에 의해 영문으로 발간됐다. 한반도 뉴스가 다시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이때 작가의 생각을 들어봤다.

어떻게 DMZ를 소재로 어린이 그림책을 그리게 되셨나요?

2006년 한국, 중국, 일본의 그림책 작가들이 어린이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자는 취지로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살벌한 비무장지대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평화와는 반대되는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이지요. 거대한 괴물이 할퀴고 간 상처처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남북으로 나눈 철조망과 마치 피 흘린 자욱과 같은 황토빛 대지의 선명한 이미지는 한반도의 슬픈 풍경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으로서 비무장지대를 그림책의 소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땅인가요?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하면 비무장의 평화지대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내에는 여전히 수백만 기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남과 북 양측이 그곳을 사이에 두고 첨단 군사 무기로 무장하고 침예하게 대치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동식물에게는 인간의 간섭을 덜 받는 공간을 제공하여,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은 동식물의 낙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자연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억배 작가의 그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

이 책을 그리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답사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천지역 민통선 지역에서 만났던 야생 두루미 가족의 모습, 영하 20도의 철원 토교저수지에서 만난 야생 기러기 떼가 비상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답사하면서 그곳의 풍경이 사실이지 만 사실이 아닌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슬프기만 한데, 자연의 풍경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답기만 한가?' 그것은 모순과 역설의 이상한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DMZ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곳은 여전히 남북의 군사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GP를 공개적으로 철수하고 끊어졌던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넘게 이어진 남북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바랍니다.

책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철책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북녘의 가족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진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평화로운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해외동포를 포함한 8000만 한민족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심스럽기만 한 평화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상과 '되돌이킬 수 없는 완성된 평화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 권의 그림책이 당장 세

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가자 지구의 장벽 같은 정치적 장벽을 포함해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대화와 화해가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현실의 장벽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체념하고 절망한 마음들이 뭉쳐서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역으로 현실의 장벽을 해체하려 한다면 우선 마음속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장벽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벽은, 이 역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루 아침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난 뒤에는 무엇이든 좋으니 현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한국 속담에 '낙숫물이 댓돌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붕에서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빗물이 돌에 구멍을 내고 마침내 뚫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세월 끝까지 노력한다면, 마침내 현실의 장벽 또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인터뷰 진행: 원충연(2019년 1월 3일)



선구자들

조니 애플시드

비어리 홀리엇

영적 각성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던 1829년 무렵, 오하이오주에 있는 맨스필드에 서 한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 도전의 말씀을 전하며 누군가를 찾았다. “지금 맨발로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계신 분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셔츠 대신에 커피 자루를 입고 있던 맨발의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존 채프만(1774-1845)이었다. 그는 미국 개척시대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과 농장을 일구고 천국의 복음소식을 전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Johnny Appleseed)라 부르며 미국의 국민 영웅으로 여기게 된다. 채프만은 미국 서부지역으로 개척여행을 떠나면서 사과 농장 관리인으로 여러 지역에 많은 과수원들을 만들고 경작하였다. 그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세상을 뜰 무렵에는 사백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땅을 소유했지만 성공을 즐기지 않고 고되고 외로운 삶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 채프만은 꿀과 야생 딸기 그리고 우유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먹었고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은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했다. 음식을 버리는 한 여인을 향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채프만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채프만은 친절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과 묘목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어느 한겨울에는 서부로 여행 중인 한 가족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신발 한 켤레를 가져 주었다. 심지어 뱀이나 곤충과 같은 동물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었고 이러한 그의 태도로 인해 여행하면서 만났던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들은 그를 존경했다. 채프만이 가지고 있던 자연을 향한 경외심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

다 훨씬 깊었다. 당시 사람들은 과일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좋은 나무에 있는 어린 가지를 잘라 튼튼한 나무 줄기에 접붙이는 작업들을 했는데, 채프만은 그러한 접붙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죄로 여겼다. 그런데 그가 심은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들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발효한 사과주스나 애플 브랜드(사과주를 증류시켜 만든 독한 술)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채프만은 항상 성경과 함께 윌리엄 블레이크나 랠프 에머슨과 같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엠마누엘 스베펜보리의 책들을 지니고 다녔다. 나그네들을 위한 숙소를 찾아가 여러 밤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자주 읽어 주기도 했다. 채프만은 이타적인 친절을 배움으로 진정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거칠고 고된 그의 삶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채프만이 젊은 시절 말에게 머리를 차인 적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들먹거리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아이들은 채프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기를 학수고대할 만큼 그를 좋아했다. 채프만은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리본을 가지고 다녔고,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불타는 숯불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채프만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들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니 애플시드는 원래의 존 채프만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게 그려졌다. 사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굉장하다. 1881년 오하이오주의 한 역사가였던 힐(N. N. Hill)은 “지난 백 년 동안 채프만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평가했다. ➤

존 채프만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하워드 민스(Howard Means)가 지은 Johnny Appleseed: The Man, the Myth, the American Story (Simon and Schuster, 2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하워드 민스의 연구의 바탕 아래 쓰여졌습니다.





카메론 데이빗슨 사진, 웨스트 버지니아 남부 탄광 채굴로 정상이 제거된 산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피조물의 몸을 떼고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가 이를 알고 사랑과 숨씨로 경건히 대할 때 그것은 성찬(聖餐)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모른다 하며 욕심과 파괴로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은
신성모독이 된다. 이렇게 신성모독을 저지른 우리들은 영적 도덕적 고립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고, 다른 사람을 곤궁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 윈델 베리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www.plough.com/ko

쟁기출판사

Walden, New York, USA
Robertsbridge, East Sussex, UK
Elsmore, NSW, Australia